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자** · 정향미*** · 안혜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과 의료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국민 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향상, 생활 양식의 서구화, 식생활 개선 등으로 영양상태가 극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문과 박, 1993). 특히 비만증의 경우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 내의 식생활 방식에 기인된 것이 많다. 우리 나라의 가족 형태가 한 자녀 혹은 두 자녀인 소가족형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날로 심각화되고 또 지나친 영양 공급으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등, 1991; 문 등, 1993).

아동기는 일생 중 심신의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특히 학령전기에는 정신생활에서 차츰 자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성장은 일생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및 행위가 발달하며,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감은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매우 체계적,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변화된다(Campbell, 1975). 또한 학령기 초기까지는 부모나 가정에 의존성이 매우 강하여 이때 형성된 생활습관은 일생동안 지속되므로(이 등, 1994),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과 생활방식은 아동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초기 아동의 부모가 제공한 바른 건강 증진행위는 학령기 후기에 이미 독립심이 생겨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태도나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동의 건강행위에 대한 Farrand와 Cox(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아동은 건강행위도 잘하고, 건강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도 더욱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연결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주된 돌봄의 제공자로서 그 역할이 더욱 많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동을 위하여 행하는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건강증진 행위는 개인의 인지적 양상과 가치관 반영하며 삶의 단계와 관련된 사회 심리적 현상과 문화적 맥락에 근거한 개인의 신념으로부터 도출된다(Schultz, 1979). 문화는 건강과 건강행위와 관련된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며 중요한 방향으로의 삶의 유형을 만들어 가며(유, 1993), 인간이 자신과 이웃 그리고 그가 둘러싸여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에 대한 의미를 줌으로써 스스로 방향 설정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4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윤 시도하는 인간의 활동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전, 1992). 그러므로 인간 행위는 구체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의미가 있고, 환경적, 문화적 맥락에 관한 고려 없이 개인이나 가족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한계를 가져다주고(Leininger, 1985, 1988), 건강증진 행위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Pender, 1987). 따라서 각 가정의 문화 즉, 각 가정의 고유한 삶의 방식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령 후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의 실행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강, 1992; 이, 1995)와 학령기 아동이나 부모의 건강행위(이, 1995)를 파악하는 것 등으로 기존의 연구 도구를 이용하거나, 전체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일부분이 아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문화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행위의 이해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및 학령기 초기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행위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의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아동을 위한 건강관과 건강증진 행위를 파악하고 실제 그들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맞는 아동들의 건강을 위한 질적 간호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이 시기에 부모들을 통한 올바른 건강관과 건강증진행위를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보다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와 문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모든 문화권 내의 모든 집단과 함께 생의 일부로 존재해 왔으며, 건강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Lalonde report(1974)로 부터 시작되어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혹은 안녕의 더 나은 수준을 성취하기 위한 것(Laffrey, 1990)으로, Pender(1982)는 신상증진을 건강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지역사회 활동으로서 안녕의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

현, 개인적,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이라 하였으며, O'Donnell(1986)은 최적의 건강상태로 향하도록 생활양식의 변화를 돕는 예술이며 과학이라 하였다.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Harris(1979)는 건강을 유지, 증진, 질병예방, 생명연장 행위로 구분하였으며, 조(1983)는 건강증진행위를 결코 치료나 예방 차원에 머무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무한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 개발 영역도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변 등은(1992)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은 상향성을 지닌 안녕 지향성을 가지며, 능력 강화 또는 힘을 갖는 것, 개별적인 주관성을 가짐, 삶의 양식의 변화와 행동 수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 개인, 사회 및 환경이 변하는 것이며 건강증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및 대중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John-Saylor(1980)는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증진의 목표를 건강유지, 조기 발견, 그리고 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전체성, 균형성, 적정 기능을 얻도록 돕는 것으로 두고, 건강증진행위에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 식습관, 운동과 휴식 정도, 운전 습관, 음주 습관, 흡연 및 약물 복용 습관, 대인관계, 성적 관계가 포함되었다. Christiansen(1981)은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요인분석에서 신체적 적성, 감정을 나눔, 건강 보호, 질병예방행위로 나타났다.

한편, 동양에서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으로 '자연과 조화된 삶'을 강조해 왔으며, 무병장수에 대한 우리의 건강 관행은 최근의 질적 접근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삶으로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홍, 1979; 김, 1990; 이와 양, 1990; 김, 1988; 심, 1990)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양(1990)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생활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제대로 잘먹는다', '밝고 평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생활한다', '원활하게 움직인다', '부조화를 막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의 범주로 규명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Farrand와 Cox(1993)는 9~10세 아동의 건강 행위에 대한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 정도, 성별 차이가 아동의 내적 동기, 자존감, 건강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강(1992)은 국민학교 육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를 개인위생 및 일상생활 습관, 전염병 관리, 사고 예방, 정신 건강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개인 위생 및 일상생활 습관에 대한 실행 정도가 가장 높

다고 하였으며,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 지식, 지각된 건강 상태, 성별,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순으로 보고하였다.

이(1995)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담론 분석에서 건강증진행위를 건강 행위로 보고 건강행위는 현재하고 있거나 미래에 하고 싶은 건강행위로 보았다. 아동들은 건강행위영역을 운동, 음식, 생활 습관, 청결 등으로 구별하였고 이 중에서 운동을 가장 중요한 행위로 보고, 음식은 골고루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해야 하며, 밖에 나갔다면 손발 잘 씻고, 이빨 잘 닦아야 하며, 먼지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건강, 성격, 학업 성취, 예의범절 등을 들었고 이 중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며, 음식, 운동, 놀 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아동을 위한 건강행위로는 음식물을 골고루 많이 먹게 하고, 운동을 권하며, 보약과 건강 식품 등을 해주고, 비타민제를 주며 예방 접종을 해준다고 하였다. 아동들을 위한 부모들의 건강행위는 자신에게 하듯이 아동들에게도 아동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질병 행위는 일상생활로 나타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생하며, 문화는 건강과 건강 행위와 관련된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므로(유은광, 1993), 문화와 건강과 관련된 행위는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연결된 개념이다.

문화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인간고유의 특성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람됨을 이해하는 것이며(존스톤과 셀비, 1980), 하나의 문화는 단순한 문화라 할지라도 수많은 문화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요소는 조화된 상태를 이루고 있다(이광규, 1994).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문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문화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단의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학습된 행위와 가치의 유형이며(Leininger, 1988), 어떤 특정 사회의 생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 양식이란 수많은 행위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의 요소들은 모두 특정 상황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한 개인은 그가 자란 사회의 문화 즉 가족내에서 경험을 통해, 교육과 모방을 통해 일생 동안 그의 삶의 행동을 하게 된다. 가족이 가진 주요한 기능은 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행위를 위한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Linton, 1992). 다시 말하자면 아동은 그들의 부모들을 통하여, 학습과 모방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동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및 학령기 전기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생활양식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이므로 시기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과 생활양식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이 등, 1994; 이와 현, 1996) 아동의 영양장애나 발육장애 또는 비만등은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교적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효를 중시하고, 가부장제도, 남존여비 사상과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를 규범 원리로 인식하는 전통성을 지닌 세대와, 근대화 및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하는 근대성을 지닌 세대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대상자가 속한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연구는 각각이 대상자가 겪는 독특한 경험들을 획일적인 틀 속에서만 파악하게 되어 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다(김과 전, 1994).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 방법론적 배경

간호학은 과학이자 예술인 학문으로서 간호학에 관련된 주요 현상은 인간, 환경, 건강이다. 과학의 원리와 절차는 가치 중립적인 반면 인간을 대상으로 생명,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실무는 가치 지향적이어서 과학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식의 발전에 있어 연역적 방법의 신뢰성에 회의론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간호 학자들도 방법론적인 재고를 하게 되었다. 많은 간호학자(Fry, 1980; Munhall, 1982; Parse, Coyne & Smith, 1985; Munhall & Oiler, 1986; Morse, 1989; Patton, 1990)들은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방법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연구하는 최적의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질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의 발전에서 드러난 휴머니즘 상실을 간호학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과학적 작업에 참여하면서 휴머니즘적 가치 지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Gotner, 1983), 간호학의 대상자 접근에 있어, 근본적으로 간호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주관성, 공유 경험, 상호 주관성, 신재보다는 경험된 실재를 고려한다는 점

동 질적연구방법의 특성은 간호 철학의 신념과 더 일치함을 보여준다(최 등, 1993).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는데는 일련의 법칙이 있으며 이 법칙은 또한 우리의 행태나 사회집단의 행태를 수정해 준다. 문화란 바로 인류가 세상에 대처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법칙들인 것이다(최 등, 1992). 문화는 "행동의 패턴", "행동을 위한 패턴"으로 습관 또는 관습 및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며 인간의 삶의 방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의미의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Goodenough, 1961). 그러므로 문화기술지는 문화의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적으로 구성된 환경의 맥락내에서 인간생활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으로(Leininger, 1985; Aarodt, 1991)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생활을 이해하고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통해 인간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호의 목적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최 등,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그들의 문화의 상황성과 변하지 않는 본질성이 반영된 삶의 방식과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인간의 행위 패턴과 규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실제에서 사실을 관찰하고 양상 및 규칙을 찾고 해석함으로써 구조화하고 설명하는 것(Omery, 1988)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에서 학령기 초기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시기의 아동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관을 알아보고 건강증진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 연구방법(ethnography)을 사용하였다.

2. 연구장소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장소는 P시로 한국의 현대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대도시이며 연구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가족(연구참여자 1)을 중심으로 동의를 구한 뒤 먼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웃에 친분이 있는 다른 가족을 소개받았다.

주요 연구 참여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머니 7명으로 자녀의 연령은 4세에서 9세였으며, 각 가족 당 자녀의 수는 1명 또는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32세에서 37세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2명, 대졸 2명, 대학원 졸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생활정도는 전부 중정도로, 6명은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1명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그의 연구의 참여자와 면담을 하는 도중에 이웃에서 놀러온 어머니 2명의 면담내용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면담한 내용과 참여관찰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참여자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대하여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3. 연구자의 훈련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질적연구를 1학기 수강하였으며 1992, 1993, 1994, 1995년에 개최된 질적 연구 단기강좌를 이수하였고, 인류학적 현지조사방법 및 문화기술지 방법론에 관련된 문헌들을 관심을 갖고 고찰하였다.

1994년 7월에 연구방법을 훈련하기 위하여 Spradly(1989)의 방법을 주로 참조하여 관찰훈련과 면담을 하였다. ○○학교의 사무실과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 장소, 행위자, 물건, 행동, 사건, 활동, 감정 등에 관한 것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노트에 기록을 한 후 돌아와서 내용을 확장하여 기록하고 분석하여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과 관찰을 실시할 때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가정이라서 연구자가 객관적 자세로 연구에 임하지 못하고 연구참여자들과 대화에 깊이 관여하여 서술적 면담과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실제 자료수집시에는 연구자로서의 중립적 자세를 갖고 면담과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면서 면담을 할 때 면담의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흐름이 중단되기도 하므로 실제 자료수집시에는 연구자가 면담을 주로 하면서 메모를 하였고, 연구보조자는 연구 참여

자와의 면담시의 시간, 표정, 억양, 상황, 자녀와의 상호 작용 등을 주로 관찰하고 메모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Spradly(1989)가 제시한 자료 수집방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4년 7월에서 1996년 1월까지 18개월간 이었다. 자료수집은 면담과 참여관찰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의 회수는 총 45회로 개인 당 2-7회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사무원으로 부서를 옮겨 2회 면담을 한 후 면담이 중단되었으며 그 외의 연구참여자는 평균 5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6시간 정도였다.

면담과 관찰시간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었으며, 이 시간은 각 가정의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첫째 아동이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고난 후였으며, 어머니와 면담을 시작하여 아동이 집에 돌아오는 12시 이후에는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각 연구참여자의 가정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난 후에는 가족구성원과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면담을 하거나 식사하는 행위에 대해 관찰을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아이를 키우시기가 힘드시죠?" "아이 키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의 비구조화된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때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중간 중간에 참여관찰을 기록하였다. 또한 아동이 거주하는 방, 의복, 장난감 종류 및 배치도 등을 사진으로 찍어 수집하였다. 면접시 녹음된 자료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끝까지 한 번 듣고 대략의 윤곽을 파악한 후 면담시 기록한 노트를 대조하면서 빠짐없이 필사하였다. 관찰 내용은 노트에 약식으로 기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녹음내용과 기억에 의존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1회의 조사가 끝난 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뽑아내고 대략의 윤곽을 파악하여 다음 질문의 주제, 질문방향, 질문 방식, 관찰할 사회적 사건, 만나야 할 연구참여자 등을 설정하였다.

자료분석시 영역분석 단계에서는 기술적 관찰과 질문을 통한 자료를 모아서 필사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아동에 대한 건강의 의미, 건강증진 행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는지, 건강증진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건강증진행위를 돕는 사람은 누구이며, 건강증진행위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큰 주제별로 밑줄을 긋고 약자를 표시한 후 제보자의 번호와 자료집의 페이지를 적고 카드에 올려 붙여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25개의 영역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의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영역 5개가 심층분석을 위해 선정되었다. 분류분석은 5개의 영역에서 의미론적 관계의 하위개념들을 집중관찰하고 구조적 질문을 하여 조사하는 단계로 주로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관찰은 면담시의 상황을 기술하는데 그쳤다. 문화적 범주와 관련된 속성을 밝히는 성분 분석의 단계에서는 선별관찰과 대조질문을 하는 단계로 각 영역의 문화적 범주간의 유사성, 차이점, 관련된 의미의 범주를 조사하였다. 그후 각 영역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적 원리를 발견하는 주제분석의 단계이다.

이상의 분석과정은 반드시 순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영역분석을 하는 동안 분류분석이나 성분 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세 종류의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적 원리는 따로 기술을 하지 않고 각 영역의 기술시 그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의 편견을 막기위하여 공동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함께 논의하고 분석하였으며, 문화기술지를 적용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교수 2인으로부터 자료 수집과 자료분석시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아동기는 가족으로부터 계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며, 가족은 아동의 잠재력을 조직하고 뻗어 나가게 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통합된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다. 그러므로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으로부터 처음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아동에게 원초적이고 중요한 보호자인 어머니는 아동 양육 기술에 있어서 가족 내의 전문가로서(정, 1988),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아동에게 전달하고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의 요소들은 교육과 모방을 통해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과정은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화현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

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어 개인의 생애보다도 훨씬 길게 지속되는 것(Linton, 1992)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충고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부터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위를 알아본다. 인간의 행위는 내재된 가치나 신념 등이 표현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 증진 행위는 아동의 건강관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므로 아동의 건강관을 기술한 후에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 행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아동의 건강관

아동의 건강관은 어머니가 아동의 건강을 보는 관점으로 아이다운 외모, 아이다운 성격, 병치레 안하는 것, 잘먹는 것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1) 아이다운 외모

어머니는 아동의 외양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내면적인 측면의 성격이나 질병과 관련된 측면보다 우선으로 여긴다. 그래서 아이다운 외모의 기준은 아동이 비만하지 않으면서 통통하고, 키와 몸무게가 제 또래에 맞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 통통함

어머니들은 “먹어도 안찌는 아이들 있더라 통통하면 보기 좋다 아이가”하며 아동의 외양이 전체적으로 둥글면서 통통한 것을 건강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아동이 통통하다는 것은 신체 각 부위에 피하조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동이 통통하지 않고 야위어 보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이웃의 통통한 아동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며 아동이 여윈 것은 어머니 자신의 책임인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현대의 아동들은 과거에 비하여 영양의 섭취가 좋고 간식의 섭취가 증가하여 여윈 아동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만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비만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사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비만한 사람이 있으면 아동이 비만하여 건강을 해칠까봐 어머니의 걱정이 증가한다.

아동의 외모를 통해 건강을 말할 때 여아와 남아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요새 여자 애들은 다이어트시키래? ... 머시마[남자]는 뭐.” 하면서 여아의 외모는 남아와 달리 비만하지 않되 다소 날씬하도록 신경을 쓴다.

• 키와 몸무게의 성장

어머니는 아동의 키와 몸무게가 성장하는 것을 아동이 건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덜 나가는 것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낸다.

어머니는 아동의 키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비중을 두며, 아동의 키가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아동이 음식을 잘 먹지를 않거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아동의 체중 또한 건강의 기준으로 다른 아동에 비하여 적게 나가면 어머니는 실제 아동이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자란다 하더라도 걱정을 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동의 외양을 건강으로 여길 때 표준 신체계측치와 비교하기 보다는 이웃의 또래 또는 형제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고, 계절이 바뀔 때 작년에 아동이 입던 옷을 입혀봄으로써 평가한다. 이와같은 가치관은 조부모와 이전 세대로부터의 건강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대의 가족유형은 핵가족으로 조부모 세대와 같이 거주하지 않지만, 건강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는 밀접하게 영향을 주어 세대간의 관념의 순환이 이어지고, 전승된다. 그래서 아동이 건강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어머니의 관점보다도 “어른들이 보기에”라고 말하며 아동의 조부모의 관점에 더 비중을 둔다.

2) 아이다운 성격

어머니는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측면이 포함된 것을 건강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것을 “애답다”라고 표현한다. 내재된 의미는 아이다운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둥글고 원만하게 또래 친구랑 잘 어울리면서 아이답게 친진스런 행동을 하는 것, 아동이 야무지며 할말을 하는 것, 정신이 건강하여 밝게 보이는 것이 포함된다.

• 또래 친구랑 어울림

아이다운 성격은 먼저 “제 연령에 맞게 따라 놀 수 있는 것”으로 아동의 나이가 또래에 비해서 많은데 하는 행동이 어리거나 의젓하지 못하며, 어린 동생에게 전혀 양보를 할줄 모르고, 아동의 나이보다 어린 아동들이 하는 놀이를 하는 경우는 정신, 심리, 사회학적 측면의 성장이 느리지 않나 여긴다. 특히 남아인 경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이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아동을 일컬어 “둥글다”라고 표현한다.

• 야무짐

“야무지다”는 사람됨이 헤프지 않고 단단하다(이, 1982)는 의미로 “애들은 다 골고루 해야 된다” 하면서

아동이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며 몸과 언행이 응골찬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을 “아이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한다. 즉 아동은 사리 분별력보다는 아동 특유의 활발함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지나치게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따라 아동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것을 아이다운 성격으로 간주한다.

• 밝음

아동의 정신이 건강한 것을 “밝다”고 말하며, 어머니는 스스로 아동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성격으로 유도하려고 애를 쓰고 정신적으로 밝고 큰 문제없이 수월하게 크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면 어머니는 미리 탐색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밝게 키우기 위하여 애를 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비디오 만화영화나 만화책을 좋아하며 이런 것들의 구입이 용이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단 내용이 건전하지 못하고 폭력물이 많은 경우에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면 못 보게 한다. 또는 아동에게 어릴때부터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등의 밝은색의 옷을 의식적으로 입히고 검은색의 옷은 가능한 입히지 않는다. 그러면 아동은 그림을 그리거나 옷을 선택할때도 밝은 색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모유 수유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성격의 원만함을 바라기도한다.

3) 병치레 안함

병치레는 병을 앓아 치러내는 일(한글학회, 1995)로, 주로 자주 앓는 자질구레한 잔병을 치러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병이란 감기를 하는 것, 아동의 몸이 허한 것이 포함된다. 가족의 구성원은 건강에 대한 지식유무를 막론하고 아동이 병이 나서 아프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상시의 건강행위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크게 병치레 없이 잘 자라는 것”과 아동이 병에 걸리더라도 잘 이겨내는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 감기 안함

아동은 환경에 대한 신체의 적응력이 낮아 외부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계절이 바뀔때면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잦다. 어머니는 아동이 무엇보다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며 평소 다른 아동 보다 감

기에 잘 걸리지 않는 아동을 보고 건강하다고 한다. 또한 감기에 걸렸어도 “빨리 빨리 낫는 것”으로 병으로부터 회복이 빠른 것을 건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동이 크게 아프지 않고 감기를 남보다 많이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기 바란다.

• 허하지 않음

허하다는 것은 원기가 부족한 것으로 아동이 기운이 없고 지쳐 보이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 허해보일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원기를 회복하도록 음식을 섭취 하여 아동의 몸을 보하게 된다. 그래서 아동의 원기를 회복하고 유지하여 병이 없는 것을 건강하다고 한다.

4) 잘먹음

아동이 음식을 잘먹는 것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의 근본은 올바른 식사에 있으며(홍, 1995), 아동이 밥을 잘 먹으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건강하면 또한 식사를 잘한다.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중에서 김치를 잘 먹는 아동은 다른 음식의 섭취도 잘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아동이 음식을 잘 먹어 건강하다고 여기는 어머니에게 아동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걱정을 안하겠다고 물었더니 “아이구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음식을 잘먹는다는 것은 건강한 것에 포함되는 의미이지 반드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울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이 음식을 잘 먹지 않을 경우에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만큼 크지는 않아요...” 하며 음식의 섭취가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긴다.

이와 같이 현대의 어머니의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은 정적이고 단일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 가능하고 세대를 거쳐 전달되고 공유되는 역동적 개념으로 외모가 통통하고 키와 몸무게가 성장하는 것, 성격적으로 또래랑 잘 어울리고 밝은 것, 병치레 안하는 것, 잘 먹는 것이 서로 상호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의 건강에 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지각하며, 이것은 아동에 관한 건강관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아동이 커가기때문에 중점유두는 행위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 성장이 빠른 유아기에 어머니는 아동이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잘먹도록 중점을 두다가 자녀가 하릴런기가 되면 음식의 섭취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려 대인관계를 잘 하는 사회성에 더 중점을 두게된다.

2. 아동을 위한 건강 증진 행위

건강 증진 행위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건강관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을 위한 건강 증진 행위로 자연에 순응하기, 보하기, 공유하기, 길들이기, 기원하기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자연에 순응하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극대화하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동의 본질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어머니는 아동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아동이 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과 약물이라 하더라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다스린다. 또한 음식의 섭취시 가능한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섭취한다.

(1) 천성을 인정하기

천성이란 타고난 특성으로,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성격은 부모의 체질을 답아서 태어난다. 즉 타고난다고 여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을 하기 위하여 아동의 타고난 신체적 특성, 성격 등을 인정한다. 신체적 특성 중에서 위장계, 치아, 특이체질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데 한 아동의 아버지는 위장이 나빠서 식사를 많이 하지 못하며 설사를 자주하는 편인데, 아들은 어머니를 답아서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여긴다. 어머니의 치아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치아관리를 철저히 시키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으며, 반면에 치아가 튼튼하게 타고난 경우에는 아동이 사탕을 비롯하여 단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빨이 안씩는다고 여긴다. 또한 아동의 태열은 조부모의 영향이거나 아버지의 체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여긴다.

아동의 성격도 부모를 답아서 타고난다고 여긴다. 아버지의 성격이 매우 소심해서 거의 대화도 잘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고 주로 집에 잘 있는 경우에 아들이 타고났다고 생각하여 걱정을 한다. 그래서 아들이 조금 더 크면 웅변이나 자기 표현을 잘 할수 있는 것을 시켜서 수줍음이 없는 성격으로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며 외동딸이 남들 앞에서 발표력 좋고 수줍음이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성격특성을 지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건강 상태, 특이체질, 성격 등이 한쪽 부모나 조부모와 닮아있음을 어머니는 발견하고 어머니가 인지하는 좋은 면을 답았을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좋지않은 면을 답았을 경우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안 바뀌는 부분이 많은 것을 깨닫는다. "...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계속 합리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원형이 안 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하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런거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가 있나 뭐?" 하면서 체념하게 된다.

인간은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내부에 있어서도 자연과 공통된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외의 교류 역시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그 생명현상의 발현에 있어 자연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모든 생리현상 및 병리상태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건강의 파악에 있어서도 자연에 순응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건강의 지속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이런 일관된 원칙이 지속된다(김, 1994). 그러므로 아동의 타고남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에 따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운명을 감수하고 체념하는 숙명주의적 성격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지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1993). 그러나 현대는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서구화의 물결로 인하여 이러한 가치관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자연의 정복이라는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무조건 자연을 인정하고 체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은 취하고, 부정적인 것은 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을 볼 수 있다.

(2) 다스리기

행위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조절해야 하며,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가능하며 이것을 "다스린다"라고 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넘침이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의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려면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머니가 아동에 대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아동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들어주기와 아동이 병이 났을때 자연과 순응하면서 병을 다스리기, 음식과 보약의 양 조절과 신체청결시에 과하지 않도록 함이 포함된다.

① 어머니의 마음을 다스리기

• 욕심 버리기

어머니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먼저 아동을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며 어머니 자신과는 분리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의 욕심에 의하여 행위를 하지 않는다. 즉 어머니들은 아동의 건강을 증진

키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충매체나 주위 이웃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시간적 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 행할 수가 없음을 알며, 아동의 능력을 무시한 어머니의 무리한 욕심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하여 과한 욕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

아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강해야 학교 공부를 비롯해서 학원 수업도 가능하다고 여기므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서는 아동에게 너무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하게 하고 아동의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즉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동이 체력이 따르지 못해서 기운이 없고 힘들어하면 공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을 고려한 뒤 학업에 임하게끔 하여야 능력발휘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아동의 행동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어머니는 자신의 기대에 아동이 부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아동은 용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식비를 몰래 가져가자, 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여 여러번 화를 내거나 타일러 보았으나 그 행위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이의 행위이나 그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고 못견디어 하는 감정 노출은 어머니의 문제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아동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기 위하여 어머니 자신이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

어머니가 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강요하는 것이 필요할때도 있지만 득과 실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면 아동이 원하는대로 행하게 된다. 평상시 음식을 잘먹지 않거나 편식이 있는 경우에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을 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필요에 따라 음식을 강제로 섭취시키면 오히려 기본적인 영양의 섭취마저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아동의 취향대로 요리를 하여 영양 섭취를 끌고루 하게끔 애를 쓴다.

한 어머니는 점심시간에 아동이 인스턴트식품(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아침에 먹던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동이 전혀 먹지 않으려 하면 어머니는 아동이 음식을 안먹는것 보다는 인스턴

트식품이라도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아동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된다.

또는 아동이 원하는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영양을 섭취하게 한다. 일본에서 5년성도 살다가 온 한 아동의 경우, 멸치 볶음을 먹더라도 일본식으로 약간 "달작지근하게" 볶아 주어야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달게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동이 먹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동의 취향에 맞게 조리할 한다. 아동이 카레나 볶음밥 종류는 좋아하는데 김치를 포함한 나물 종류는 잘 안먹으면 볶음밥에 나물을 섞어 넣어서 조리를 하기도 한다.

② 병을 다스리기

아동이 아플 때 약물사용, 병원 방문 등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동이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게 신체를 조절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아동이 열나고 심하게 아플때는 병원을 가지만, 성장하면서 가벼운 감기 등의 질병은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저절로 낫거나, 아동 스스로 증상을 참아내면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긴다고 한다. 동의보감(홍, 1995)에도 유병불치득증의(有病不治得中醫)라 하여 병은 병자가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병이 생겼을 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중의의 치료를 받은셈 짚은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감기나 뭐 이런것 걸리면 감기약 약간 들어가고 스스로 낫게 하는게 저항력을 키우지 자꾸 그래 약 치고 뭐 그리, 예방접종 그런거 별로 안 좋다고 그라데" 하면서 아동이 병을 다스릴수 있도록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예방접종 조차도 하지않는 경우는 오히려 현실의 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대에 사는 인간과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적응과 대처가 필요함을 내포한다.

③ 과하지 않기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조화된 생활을 하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체 청결, 음식섭취, 약물복용, 심지어 학업성취 까지도 과하게 행하는 것을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행동으로 본다.

한 어머니는 여아가 배뇨할 때마다 외음부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항상 뒷물욕 시켰다. 하루

에도 수차례 뒷물을 하다보니 외음부에 상주하는 정상 세균총까지 과하게 씻어 버린 결과가 되어서 요도감염이 2회나 있었고, 아동이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 후로 지나침은 오히려 부족한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아동의 외음부를 과하게 씻지 않고 샤워기를 사용하여 가볍게 씻긴다고 한다.

식사시 아동이 먹는 음식의 양도 아동이 먹을 정도로 주어 소화흡수를 돕는 것이 필요하며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긴다. 전통사회에서는 식사시 자기 몫을 덜어내는 것은 자신의 복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여겨서(유안진, 1994) 식사시 음식의 양은 떠준대로 먹게 하였으나 현대 어머니는 아동이 먹을 수 있을만큼 음식의 양을 미리 덜어내고 먹더라도 남기지 않게 하며, 가능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소화기계 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더욱 신경을 쓴다. 아동이 6개월 때 장염에 걸린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과식을 하여 탈이 나면 회복이 느리고 그만큼 아동의 영양섭취가 늦어지면 오히려 조금씩 먹이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소화·흡수할 능력이 있을 만큼 약. 그거 이렇게 다리는 양도 조절을 해가지고...”라 하며 아동의 체질과 능력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여기며, 무턱대고 약의 양을 많이 복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이와 같이 인간이란 다양성을 가진 개체로 각각의 체질에 맞는 생활습관 및 식이조절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 1994)고 여긴다.

(3) 자연있는 그대로 먹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편리와 실리를 중시하지만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에 있어서는 편리성보다도 영양면과 위생면에 중점을 두어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가능한 집에서 정성껏 요리를 한다. “청결하게 먹이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씻다 보니까 나가서 먹는게 마음에 안 들더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 먹이게 되면...” 하면서 아동에게 주는 음식은 가능한 어머니가 직접 청결하게 요리해야 안심이 된다. 그래서 외식은 청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삼가하게 된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가능한 인공 조미료의 사용을 줄이고 맛이 없더라도 가능한 싱겁게 먹이고 인스턴트음식,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제, 양약의 섭취는 피하여 자연 있는 그대로 먹이려고 하고, 또한 우유보다는 모유를 먹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어머니의 것이 부족하여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젖을 먹이기 위하여 동원

할 수 있는 갖은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 신생아 황달로 자녀를 입원시킨적이 있는 한 어머니는 병원에 자녀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억지로 젖을 짜서 계속하여 먹였으며, 일부러 우유를 많이 마시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동이 크게 아픈데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모유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에 순응하기에는 아동이 지닌 개인의 타고난 천성을 인정하고, 어머니가 아동에 대하여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아동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어머니의 마음 다스리기, 아동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병을 다스리기, 과하지 않거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2) 보하기

‘보하다’는 자양분이나 약을 먹어 몸의 원기를 돕는다(이, 1982)는 뜻으로 아동의 몸과 마음을 보하기 위하여 아이다움을 인식하고, 힘을 돋우기, 제한하기가 포함된다.

(1) 아이다움을 인식하기

어머니는 아동의 몸과 마음을 보하기 위하여 아동이 어른과 다른 개체로 존재하며, 각 아동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특성이 다르고, 몸과 마음의 통합성이 미숙한 존재임을 인식한다. 동의보감(홍, 1995)에 의하면 건강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증검발한: 蒸劫發汗), 음식, 약, 운동이 몸에 좋았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① 아동에 대한 개별성 인식하기

아동의 몸과 마음은 성인으로 성장발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른과는 다르고, 아동의 서열이나 성별에 따른 성격 및 행동의 특성을 중시하여 아동의 몸을 보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이 된다.

• 어른과 구별하기

아동은 어른과는 다른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여 건강증진행위를 행한다. 즉, 아동은 활동량이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땀을 많이 흘리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른 보다 옷을 두껍게 입히지 않는다. “옷을 막 겨 입히지 않고... 우린 내복이 없거든 우리 애들은...” 하면서 겨울철에도 아동에게 내복을 입히지 않고, 중앙난방이 되는 아파트 실내에서 반팔차림을 하고 지낸다. 이렇게 아동의 옷을 두껍게 입히지 않음으로

써 활동량이 많은 아동이 땀을 덜 흘리게 하여 체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은 체력적으로 어른처럼 강건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학업 이외에는 아동이 힘들어하므로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 아동에 따른 특성 인식하기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아동 개개인에 따라 행동 특성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증진 행위가 각 아동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아동이 두명 이상이 있을 때 비교가 용이하며 어머니는 각 아동의 특성을 인식하여 재빨리 대처를 하게 된다.

3살 터울로 남매를 둔 어머니는 둘째인 아들이 높은데서 잘 뛰어내리고 모서리에 잘 부딪히기도 한다. 또 놀이를 하다가 누나를 때리고 차를 집어 던지고 놀며, 눈 주위에 꺾혀서 흉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아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나 하며 항상 걱정을 한다. 반면에 첫째 아동이 활발하여 엘리베이터가 오를걸 못 기다리고 계단으로 뛰어내리다가 계단에서 잘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가족의 어머니는 스스로 무식한 방법이라고 여기며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 가족은 고층 아파트의 5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단을 잘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대처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특성은 서열보다는 성별이 더욱 관련이 있다.

② 아동의 통합성에 대한 한계 인식하기

아동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 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성장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첩하지 못하며, 손상받기 쉽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의식적으로 던진 친구의 돌에 맞아 다치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다쳐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통합할 수 있고, 행동을 조정하도록 돕기 위하여 어머니는 “...건강해지기보다도 애들은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 육체적으로 움직여 주고 하는게 좋지...” 하며 아동이 가능한 밖에서 뛰놀면서 스스로 심신의 통합과 조절을 배우도록 한다. 특히 실외에서 많이 뛰노는게 일광욕의 효과도 있고 자연을 접하게 되는 기회도 되므로, 집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는 경우에 바닷가의 풀밭이나 아파트 앞의 잔디밭에서 아동을 뛰놀게 하며, 따로 수영장에 보내기도 한다. 수영장에 보낼 때는 아동이 수영에 관한 규칙을 배워 전문적인 훈련을 시킨다기 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

이와같이 아동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동을 배우게 하거나 체력을 개발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아들은 친구들과 싸우다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운동을 배워서 운동감각 능력을 갖게 한다. 이렇게 운동을 통하여 아동의 통합성을 증진시킬 때에는 일시적인 행위보다는 지구력을 길러주는 의미에서 최소한 3년은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힘을 돋우기

아동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 어린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임신중 관리, 출산후 관리, 평상시의 건강관리가 되어야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행위가 가능해진다. 아동에게는 음식, 보약, 그의 보충음식을 섭취하게 하여 몸이 허하지 않게 하며, 병이 났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관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① 어머니의 건강 관리하기

아동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가 건강해야 애들도 먹이고 기운이 나와 남편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렇지, 자기 자신이 아프면은 뭐 만사 귀찮잖아 남편이고 어찌고” 라고 하면서, 어머니 자신의 건강은 가족 모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 특히 임신중 관리하는 아동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쳐 평생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여긴다.

“내가 둘째 가지고 몸이 좀 약했거든... 더 약해졌지 약 한첩 먹고 임신했어야 됐는데... 확실히 그래 먹고 낳으니깐 튼튼하더라. 임신하기 전에 약먹고 낳으면 그런 애들이 튼튼하더라...”

이와 같이 임신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출산후 아동의 몸이 약한 것과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일부러 먹여도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웃에 임신부가 아이를 작게 낳게 하기 위하여 식이조절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면 태아의 건강에 좋지 못하며 나아가 출산후에도 아동의 신체가 허약하다는 충고를 하며 적극적으로 임신부에 대한 영양관리를 강조한다.

또 출산 후에는 평상시보다 우유를 더 많이 섭취하거나 장어, 가물치, 돼지족 등을 고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녹용등의 보약을 섭취하며 어머니가 젖분비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모유를 통해 이런 영양분이 아동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건강관리는 특히 임신중에 영양섭취하기와 출산후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② 보충하기

아동의 체력을 길러주고 몸을 보하기 위해서 음식을 꾸준히하고, 골고루 먹어서 보충하고, 허할때 보약을 먹거나 그 외의 보충식을 한다.

• 음식으로 보충하기

어머니들은 “밥을 세끼를 잘먹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반찬은 지금 좀 못하는 형편이라도 밥은 잘 먹여야지, 우리 어머니는 밥이 약이다...”라 하며 아동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를 꾸준히 하게 함으로써 몸을 보하게 한다. 특히 한국사람은 밥을 먹는 것을 중시하며 가능한 아침을 거르지 않게 한다.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은 “꾸준히 먹기” 즉 삼시 식사하기와 “골고루 먹기”가 있다. “꾸준히 먹기”로는 아동이 식욕이 좋지 않은 경우라도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꾸준히 먹고, 될 수 있으면 식사시간에 간식을 안먹이고 밥을 먹이면, 건강은 유지된다고 여긴다. 이처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가능한 어머니가 부지런하게 반찬을 많이하여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해야되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어머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반찬을 준비한다. 그래서 많이 먹고 안 먹고 그런 것 없이 항상 꾸준히 먹는 아이들이 “통통하다”고 한다.

동의보감의 잠병편 내상(홍, 1995)에 식약요법(食藥療法)이라 하여 올바른 식사와 약의 성질을 알면 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본은 올바른 식사에 있고 어떤 식사가 좋은가를 모르면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없고, 또한 식료치병(食療治病)이라 하여 우선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고 그 다음 약을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건강의 근본은 올바른 식사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아침을 많이 먹지 않으려 할 경우에 한 숟가락이라도 일단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밥 대신 빵이나 콘프러스트 같은 대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골고루 먹기” 또한 꾸준히 먹는거 못지 않게 중시한다. 밥 이외에도 반찬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 섭취가 원활하게 되어 아동이 적절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애 뭘 잘 먹이게 하려고 골고루 먹이기 하기 위해서 하는게 제일 중요한거 아니냐...” 라고 하며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을 원한다. 다른 아동에 비하여 섭취하는

밥의 양은 적어도 아동이 반찬을 골고루 잘 먹는 경우에 어머니의 자량이 대단하다.

편식을 하는 아동의 어머니는 골고루 음식을 먹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 “메루치[멸치]도 이제 이빨 튼튼해지려면 먹어야 된다...” 하면서 반찬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아동에게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하려고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한다. 음식의 색상을 다양하게 하여서 아동이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일부러 색깔 있는 콩을 해주거나, 참조기 작은 것을 구입하여 매 식사때마다 한 마리씩 먹게 하고 김치는 씻어서 먹이고, 멸치 작은 것은 볶아서 칼슘 대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아동이 어릴 때부터 생우유나 치즈 같은 것을 잘 안 먹어서 칼슘 보충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잘 안된다는 어머니는 “우유에다가 요새 타서 먹이는 초코렛 같은 것 타 먹여 보기도 하는데 잘 안 먹고 그래요”라 하며 아동이 음식섭취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간다.

• 한약복용하기

음식으로 몸을 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음식 이외에 한약으로 몸을 보하거나 보충식을 통해 신체의 요구량을 충족시켜서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

일년에 한 번 정도 아동이 몹시 허하고 밥을 잘먹지 않을때 이웃에게 소개받거나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복용한다. 평상시 건강한 아동에게는 보약의 섭취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으나 편식이 심하다던지 다른 건강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라도 먹으니까 아이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구요” 하며 약의 효과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한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시킨다.

• 보충식이하기

그 외에 보충식이하기로서 아동이 먹고 싶다고 하거나 아동이 조금 허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곰국(사골국)을 한다면지, 닭을 잡아 인삼을 넣어 먹이기도 하며 장어를 고아서 먹인다. 이러한 음식은 전통적으로 몸을 보하는 음식들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몸의 기운이 허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주로 섭취한다.

모유수유시 젖의 양이 모자라면 우유와 같이 혼합영양을 하거나, 조제분유를 먹이는 경우에 멸치나 고기, 감자 등을 넣어 고은 물로 우유를 타서 먹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아동의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친구의 젖을 얻어 먹이기도 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하며, 간식 또한 수시로 제

공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 간식으로 우유에 코코아가 섞인 음식(마일로)을 타서 먹이거나, 면담 도중에도 과자, 음료수 등의 간식을 계속 챙겨주었고, 아동이 간식에 관심이 없는 경우 “안 먹을래 안 먹을라면 좀 있다가 할까”하면서 어머니는 아동이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어디 먹어봐 맛있다... 여기 있네 식빵도 또 있다 이 식빵 맛있다 먹어봐”하면서 회유를 하기도 한다.

음식 섭취를 돕기 위해 비타민 종류를 약국에 가서 구입하여 복용시키며 이러한 약품의 선택은 이웃에 놀러 갔다가 이웃 어머니의 권유로 또는 약사의 직접권유에 의하여 구입한다. 한편 외식은 좋아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특정 음식 즉 삼계탕 등의 영양식이의 요리를 잘 못할 때는 가끔 외식을 해서 보충을 한다.

③ 도움 구하기

아동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손상이 있으면 어머니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대처방법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병원을 이용하거나 예방적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또한 가족 나름대로의 특유한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

어머니가 아동의 건강진진을 위해 병원 이용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아동이 열이 나던지, 중세가 심할 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다. 반면,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

예방접종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보건소에서 꼭 접종한다.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날짜를 적어 주는 대로 하는데, 최근 발생한 예방접종시 사고로 인해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나타내며,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갈등을 하였으며 결국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예방접종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예방접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치아의 건강을 위해 가제수건을 씌워서 어릴때부터 닦아주거나 식후에 양치질을 꼭 하도록 하며, 전문적으로 치아관리를 위해 치과에 가서 불소도포를 하기도 한다. 호흡기계가 좋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체력단련을 위해 수영을 시키며, 가벼운 외상이나 상처,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약국에서 직접 약물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가정에는 항생제연고, 소독약 등의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칠때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 특유의 방법 사용하기

아동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 이웃의 도움을 구하여 가족 나름대로의 특유한 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민간요법에 가깝다. 겨울에 수영을 배우는 아동이 수영하고 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집에 돌아올때는 머리를 반드시 말리고 나오게 한다. 또한 방안의 습도를 맞추기 위하여 젖은 빨래를 늘어놓거나, 감기가 심할때 배의 속을 들어내고 콩나물, 꿀을 넣어 고아서 그 시럽을 마시면 낫는다고 한다. 땀이 났을때는 바닷물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아동의 땀띠 치료를 위하여 여름철에는 바다에 간다고 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물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될때는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한다. 즉 여름에 사용하는 전자 모기향의 경우에 밤새 틀고 자면 방안에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는 이 냄새가 몸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창문을 조금 열어 놓거나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놓아서 냄새가 빠져나가도록 한다.

(3) 제한하기

아동의 몸을 보하기위해 아동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구를 사용 못하게 하며, 특정 장소를 이용 못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아동의 몸을 방어하게 한다. 또한 아동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음식물은 아동이 섭취하지 못하게 하며 양을 절제시키기도 한다.

① 행위를 제한하기

아동은 신체적 특성상 활동량이 많으며, 특히 학령기 전기 아동의 경우 활동 범위가 넓으므로 집밖에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위험한 가정 내외의 환경으로 인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일본식 유아원 교육을 받은 한 아동은 꿇어앉는 자세로 앉고 걸을 때는 약간 안장걸음을 걷는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자세가 보기에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 아동에게 계속 바른 자세를 하도록 유도하며 운동을 통하여 자세를 교정하도록 시도한다.

면담 도중 한 아동은 앉아서 타는 장난감 말 위를 서서 구르면서 요란스럽게도 타자. 어머니는 “이거 뒤로 파 넘어지겠다” 하면서 계속 아이 넘어질까봐 걱정을 하며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아동에게 앉아서 타도록 주의를 준다.

아동이 집밖으로 놀러나갈때는 “조심해서 놀아라”하며 꼭 주의를 주거나, 실내에서 놀더라도 위험한 곳에

올라가거나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저 어디 올라가노” 하며 주의를 주어서 못하게 아동을 말린다.

특히 행동특성이 더 활발한 아동을 끊여놓은 물에 장난감 등을 넣고 노는 등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엌주위로 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며 음식물의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한다. 따라서 아동의 성격이 양전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별로 신경쓸게 없다”라고 하며 사고에 노출된 기회가 적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② 장소를 제한하기

현대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가능한 환경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여름철에 물놀이를 갈려고 할때 장소를 신중하게 가려서 된다고 생각을 하며 “**에 인제 못 가겠더라...제일 더럽단다 그래” 하면서 특정 바다는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대중매체의 뉴스를 듣고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우려되므로 가기를 피하며, 겨울에는 동네에 있는 수영장의 난방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이 감기에 걸릴까봐서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

방바닥에 음식 찌꺼기, 과자 부스러기 등이 떨어지면 아동이 주워서 가지고 놀거나 장난감에 붙어서 입에 들어가기도 하므로 어머니는 열심히 마루를 닦고 청소하며, 면담 중에도 아동 앞에 떨어진 음식을 계속 휴지를 닦으면서 얘기한다. 특히 아동의 놀이공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방과 아동의 놀이공간의 구별이 없는 경우 또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음식의 찌꺼기나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즉시로 환경의 정리를 하거나 아동을 깨끗한 곳으로 가서 놀게 한뒤 치운다.

평소때 놀이터로 잘 놀러가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더운 여름날은 놀이터에 가서 놀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다른 방법을 유도한다. “그네하고 시소하고 뜨거워서 못 간다, 어부바해줄가?(아이들 업음)” 또는 “지금 밖에 봐라, 햇볕 아이가...지금 더워서 못 가. 우리 아기가 가까 있는가 보자. 더워서(짜증 섞인 목소리) 덥다. 햇볕이 쨍쨍한데(고함지름)웅”하며 처음에는 타이르듯이 얘기하다가 계속 아동이 때를 쓰게 되면 어머니는 화를 내서라도 밖에는 못 나가게 한다.

장난감이나 싱크대 주변도 위험한 것이 있을 경우 주의를 주어 못 가게 하거나 아동이 어릴 경우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위험물을 옮긴다. 가스렌지와 조미료 통을 만지고 노는 아동때문에 어머니는 제일 구석에 조리대를 옮겨 놓았으며, 칼이나 가위 등은 싱크대 상단에 매달을 수 있는 선반을 달아 그 위에 보관하여 아동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한다.

여름에는 주로 집에서 아동과 함께 목욕이나 샤워를 하거나 아동은 물장난을 하면서 논다. 목욕탕 바닥의 타일은 미끄러운 곳으로 아동이 넘어지기 쉽기때문에 나무판을 깔아서 아동이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혼자서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와 같이 좋지않은 환경에는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보다 나은 곳이 있고 가정의 여건이 가능하면 부식을 구하기 쉬운 곳,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공기가 맑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한다.

③ 음식을 가리기

아동은 어른과 동일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위장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할때 반찬의 양념을 따로 준비한다. 저녁식사 시간에 어른 국은 고추가루를 넣고 갖은 양념을 했는데, 아동의 국은 파, 고추가루 없이 고기, 무, 콩나물만 조금 있다. 아동에게는 조그만 접시에 오뎅을 잘게 가위로 썰고 생선 뼈를 발라서 올려놓고 고기에 소금도 많이 치지 않아 심겁게 해준다. 어른들에게는 따로 간장을 올려놓았다. 동침치 무도 잘게 가위로 썰어 아동이 먹기 쉽게 하였고 김은 소금을 털어서 놓아준다. 이렇듯 아동에게는 자극적이어서 먹기 힘든 음식을 아동이 먹을 수 있도록 조리방법을 변형시키거나 크기가 큰 것은 삼키기가 힘이 들므로 잘게 썰어서 준다.

아동의 체질에 따라 음식의 종류를 선택하고 피하는데 적극적이다. 아들이 둘다 아토피성 피부인 경우 어머니는 아동에게 계란과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피하며, 한편 아동이 음식을 섭취하려고 할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좀 있다가 아줌마가 식으면 주께 아줌마가 조금 있다 뜨겁다...”라고 하며 친분이 있는 이웃의 자녀일 경우는 신체적 손상이 예상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않고 회유하거나 강요하여 못먹게 막는다.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 군것질도 제한한다. 아동이 한꺼번에 껌을 많이 씹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껌을 씹기 보다는 단 성분을 먹은 후 삼키므로 소화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치아가 상한다고 여긴다. 또 어른들이 마시다 봐둔 냉커피를 마시려 할때 “배 아야 하면 안돼” 하면서 못 마시게 말린다. 아동의 건강상 필요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간식이 필요하나 정도가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녁늦게 간식은 삼가하여 위장을 비우고 우유라 하더라도 과일섭취는 못하게 주의를 준다. 과일을 섭취할때도 날씨가 흐릴 날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계 탈이 생길

까봐 먹는 것을 삼가한다.

3) 공유하기

현대의 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은 개방체제로, 가족내에서 또는 가족과 가족간에 서로 감정과 물질을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가족내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며, 부모와 조부모의 영향을 받고, 형제간에는 경쟁을 통하여 친지간에는 자극을 통하여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가족의 화목을 도모한다. 또한 이웃과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 비교하고 도움으로써 이웃과 같이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한다.

(1)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구조는 가족 중심의 구조였으며, 가족제도는 유교적인 '효'의 윤리에 바탕을 두고서 부계적 가계계승을 위주로 하는 제도였으므로 각 가족원의 생활기반은 집(家)에서 출발하였고, 개인은 집을 떠나서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조차 없었다(고, 1993). 그러나 현대의 사회는 조상의 영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자녀 양육은 의무라기보다는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자녀중심적 가정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지내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양육자 간의 또는 형제자매간의 갈등을 해소함이 필요하게 된다.

①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하기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직장관계로 미국에 거주하며 1년에 2~3회 정도 가족과 함께 있는 한 가족의 아동은 일상적인 일도 몹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동은 8세로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친구집에 놀러가서 아빠하고 같이 노는 친구를 보고는 몹시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다며 어머니 목소리가 약간 목이 메인 듯 바뀐다. 또한 얼마전에 아동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한번 매를 들었는데 그것이 인상에 남았는지 그림 그리기 시간에 아버지 보다 더 큰 몽둥이를 그려 놓았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뒤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절대 아동에게 매를 안들었다고 한다.

직장 여성인 한 어머니는 평소 아동에 대한 관심을 많으나 아동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날 자녀가 할머니와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가족끼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이 아동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제때에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그것이 "정말 살이 될거같고" 하면서 가족이 같이하여 감정의 교류를 느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마다 수영장에서 가족이 같이 수영하고, 가끔 함께 등산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

가족 구성원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이지만 서로 함께 함으로서 서로 정서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성숙한 인격체로 발달을 하게 된다. 특히 아동이 어린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심역할을 배우고 자아정체감이 확립된다. 그러므로 가족내에서 아동의 정서적 변화나 생리적 변화는 가족 모두의 역할과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역동성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하여 주로 부모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② 가족 구성원 간의 영향받기

아동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를 보고 배우며 영향을 받으며, 아동은 부모에게 적절히 요구한다. 만일 부모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동은 통합된 성격을 얻기 위한 동기 부여나 방향 제시, 기준설정 등에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정, 1988).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역할이 중요함을 생활속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

"아이들 텔레비전보면 꼭 따라서 잘하지요. 그걸 볼 때면 겁이 나요. 부모가 하는 것도 그대로 따라 할거 아니예요..."

이와 같이 아동들은 부모의 태도가 약간만 변화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 부모들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더 힘이 든다고 한다. "애를 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인간이 되야지 애들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거든. ..." 하며 부모는 자신의 행위를 되 돌아보고 스스로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자녀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부부가 정답게 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등도 자연스럽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부모 자신은 그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자신과 자녀들의 관계도 이러한 순환의 틀속에서 관련이 되어있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 어머니의 영향받기

이 시기의 아동은 아동과 가장 오랜 시간 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때문에 아동의 성격형성, 식성, 도덕성 등은 주로 “엄마의 양육태도에 많이 달렸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소극적이고 활달을 제때 못하고 우유부단 성격의 어머니는 딸의 행동도 너무도 자신을 닮았다고 걱정을 한다. 어머니가 식성이 까다로워서 음식을 골고루 안먹는 경우는 싫어하는 음식은 안하게 되며 자연히 아동에게는 못 먹이게 되어 아동은 어머니의 식성과 동일하게 되어간다고 여긴다.

어머니가 시간관념이 철저한 경우에 아동에게 시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놀이시간을 분명하게 정해주면 아동은 밖에서 친구랑 뛰어 놀다가도 시각을 수시로 물어와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아이에게 악영향이나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아동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라고 있음을 인지하는 어머니는 스스로 “내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하며 반성을 하게 된다.

● 아버지의 영향받기

아버지의 역할은 더 넓은 사회 속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립하는 보호자이며 공급자, 즉 제도적 지도자이며, 아동이 성장함에 아버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유안진, 1994 : 정, 1988).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생활의 단위이고, 사회 생활의 핵심적 중심이 되지만, 산업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1993). 그래서 현대의 아버지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권위를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아동과 같이 잘 놀아주는 친구의 의미를 갖는다. “아빠가 과일을 잘먹거든요. 아빠 오면 더 잘먹어요. 둘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아버지와 음식을 경쟁적으로 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고기를 먹을때 반드시 상추 등의 야채를 곁들여 먹기 때문에 아동도 아버지를 닮아서 반드시 고기에 야채, 마늘을 먹는 버릇을 갖기도 한다. 한편 나쁜 식습관도 따라서 보고 배운다. 식사시 국이 없을 때 물에 말아서 식사를 하는 아버지를 두 아들이 흉내를 내서 따라 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아동은 동성의 부모를 흉내내며 경쟁하는 시기임이 나타난다.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보다는 더 나은 그 무엇이 있다는 믿음이 진보이다. 이는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더듬고 찾는 과정이다(스튜어트, 1989). 생활속에서 부모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녀는 자신보다 나은 그 무엇이

있다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터득한다. 이러한 일련의 특수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보에 대한 추구가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③ 갈등 해소하기

가족내에서 갈등은 주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인 부모간에, 부모와 조부모간에 또는 형제자매간에 갈등이 생기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의 화목이란 상하의 신분 서열을 철저하게 의식함으로써 유지되었는데, 옷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고 아래 사람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은 유지되었다(최, 1994). 즉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상호존중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나 현대의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양육자간의 갈등해소하기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은 서로 서로의 영향력 아래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라 여긴다. 부모간의 협력은 지도의 단일 체계를 줄 뿐 아니라 부모가 각자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정서적 지지를 부모 자신에게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가족 내에서도 경쟁과 질투가 생길수 있지만, 만약 부모가 아동 양육에 있어서 조화를 유지할수만 있다면 줄일수 있다(정, 1988).

가족내 갈등은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간의 의견이 같거나 문제에 따른 결정권이 양육자 한사람에게 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육자가 각기의 방법을 주장하거나 아동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을 때 서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식사를 할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동의 식사량을 늘여 영양이 골고루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억지로 떠 먹여서라도 먹이려하고, 어머니는 가능한 아이들 스스로 먹게 하려니까 의견의 대립이 생기게 된다. 한편 아동이 야채를 전혀 먹지 않고 좋아하는 햄, 소고기 등만 먹으려고 할 때 아버지는 억지로라도 아동의 입에 가득 야채를 넣어서 일단 먹여 보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밥을 한 그릇은 먹어야 되기때문에 아동이 원하는 야채만을 주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여 서로 갈등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동이 도덕심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부식비로 놔둔 돈을 가져다 쓰는 일이 몇 번 있는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동의 행동을 다스리는 방법을 두고 갈등이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

을 비추어 보아서 어렸을 때 겪은 일들이라 그런 행위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다.

아동의 놀이를 보는 견해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다. 이성의 남매가 숨바꼭질 놀이를 침대카바 아래서 할 때 아버지는 매우 단호하게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반면 어머니는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갈등발생시 해결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아동의 양육에 관련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동에 관한 것은 많이 과파하고 있으므로 주로 결정권을 갖는다. 그래서 논쟁보다도 타협하게 된다. 아동의 식습관에 관해서 할머니와 또는 남편과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어머니는 아동을 할머니에 맡기는 입장이고 노인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할머니의 의견을 수용하고 지켜보게 된다. 아동이 편식을 하는 경우는 남편을 포함하여 온가족이 갖은 방법을 사용하여도 효과가 없다가 아동이 성장하여 유치원 등의 사회생활함에 따라 저절로 편식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어머니에게 해결의 결정권이 넘어가서 어머니 나름대로 설득하고 야단치고, 상담실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아버지는 지켜보는 입장이 된다. 아동의 놀이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와는 의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좋겠다는 결론 아래 아버지가 아동을 불러서 직접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도 한다.

● 형제자매간의 갈등조정하기

성장기 아동들은 형제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자라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생순위별로 보아 가까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유점숙, 1994). 과거에 비하여 현대의 가족은 자녀수가 한명에서 두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제자매간의 서로 경쟁을 하며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갈등을 겪으며 외동인 경우에는 형제간의 갈등은 격지 않고 성장하게 된다. 현대의 어머니는 전통사회에서 처럼 엄격하게 아동을 서열이나 남여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민주적으로 동등하게 키우려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서열에 따라서는 주로 한 가족의 첫째아동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허용성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둔다. 즉 첫 아들은 각 가정마다 엄

격하게 다루어 사소한 잘못에도 야단을 자주 치게 되고 둘째 아동은 조금 느슨하고 허용적으로 양육을 하며 그런 행위들이 의식적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그리고 그런 차별성으로 인하여 첫째 아동에게는 책임감이 과도하게 부여되고 양보할 요구하고, 정서적으로 긴장감이 생겨서 양육자와 자녀간, 형제자매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이웃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갈 때 둘째가 다칠까 봐 첫째를 반드시 동반해 가지고 놀이터를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아니[네]가 제일 형님이니까 아이들니[네]가 책임을 다 져야 한다"하면서 반드시 첫째에게 책임감을 지워 주고 동생들을 돌보도록 하는 당부할 잊지 않는다.

한 어머니는 아동의 치과검진시 첫째에게는 5살될때 까지 6개월에 한번씩 불소 처리하고 치아 관리를 잘 시켜 치아가 튼튼한데 비해 둘째는 치아 관리를 열심히 안하여 치아가 몹시 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어머니는 아동의 서열에 따라 차별을 두기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며, 어머니는 그 갈등을 인지하게 된다.

형제간의 미묘한 갈등시 타협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가 객관적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동에 따라 강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큰아동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것이 형제간의 갈등으로 잠재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노골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존재함을 어머니한테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형제자매간의 갈등은 서로 경쟁을 통하여 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발되며,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갈등을 표현하거나 받아들여지게 된다.

(2) 환경에 적응하기

환경이란 자연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가 상호 배타적 범주로 독립적이지는 않으며, 둘 다 인간 집단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고려된다(전, 1992). 어머니는 가족 이외의 환경 즉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써 환경에 적응하며 조화로우심을 이루게 된다. 적응이란 사회생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Sahlins, 1968)으로 아동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적응을 시도한다. 집안에서는 또래와의 놀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외동인 경우 혼자서 인형놀이를 즐기며 동화를 통하여 놀이를 한다. 친구들과 놀았던 것, 동화내용을 얘기식으로 엮거나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을 축소해서 놀이를 한다. 이러한 행동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의 단계 중 전조작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때 정신적 표상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상징적 기능'으로 지연모방, 언어, 상징놀이를 사용하게 되며 (Papilia, 1994), 아동은 인형을 실제 아동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 중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얻기도 하며, 친구와 놀이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함께 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이웃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을 도우면서 이웃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하게 된다.

● 정보를 나누다

어머니는 이웃에 자녀의 또래 아동을 가진 어머니와 주로 건강, 교육, 생활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고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예방접종 시기 및 부작용, 건강에 대한 지식, 의원 등의 정보를 이웃의 어머니를 통해 알고, 더불어 이웃과 동참하기를 원한다. 전염병 시기가 되면 이웃사람들끼리 "요새 뭐 무슨 병이 돈다" 하면서 주의를 시킨다든지 "요새 예방주사 맞아도 소용없다면서요..." 이런 말을 하면서 염려를 한다. 또 예방접종시기가 되면 서로 "요새 뭐 맞아야 되는데 맞췄나. 너거[너희] 애들 안 맞췄으면 맞췄라"든지 "요새 수두 유행이란다. 애들 접촉시키지 말라"든지 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늦게 알았을 경우 자신만 동질집단에서 벗어난 느낌을 갖게 되어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 비교하기

한국인에게서는 같이 있는 사람과 동조하여 평균에서 모나지 않으려 하는 동조성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남이 하나까, 이것은 한국인에게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강한 정당성을 가진다. 어느 상황이던지간에 실질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남이 하나까 하는 의타성이 우선되고 선행된다. 이와 같은 의식의 형성은 한 민족으로 같은 문화를 누려온 탓도 있고 농경공동체 사회에서 유별나게 잘나거나 못나거나 처지거나 하는 특수성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하는 보편적인 특성을 안전기반으로 구축된 사회의 영향이기도 하다(이규태, 1994). 그래서 남과 동조하는 방편으로 비교하며 생활하게 되는데, 가족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숨기다가 점차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이야기하여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가족에도 있는지 비교 확인하여 나만

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는 문제로 확인한 뒤 위안을 얻는다. 아동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어머니는 처음에는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여겨서 혼자서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실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조금씩 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연구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서 동조의식을 확인한다.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도 가족 내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반드시 이웃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이웃이 좋다고 하는 것에 동조하여 따라 가는 편이 안심이 된다. 그래서 아동의 능력과 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우리아동이 안하는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피게 되며, 어머니가 소신대로 이끌어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교의식때문에 자녀가 뒤쳐지지 않나 은근히 불안해하며 마음이 조금 해짐을 안다. 그래서 "가랭이[가랑이] 찢어지게 따라갈 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그래 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갑다 그래싶데..." 하면서 이웃의 의견을 많이 고려한다. 그럼으로써 이웃에 살고 있는 가족과 아동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며 이웃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이상에서 어머니는 가족이외에도 이웃과의 비교와 경쟁,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동이 적응하여 나가도록 돕고 그리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

4) 길들이기

아동의 습관형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 뭐 초기에 안 잡으면 안된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습관을 들이는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기와 도덕관념 갖게 하기가 있다.

①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기

기본 생활 습관에는 신체 청결, 양치질, 식습관, 배변 및 배설 습관, 자세 유지 등이 있다. 신체 청결로서 아동이 밖에 나갔다 오면 외부의 먼지와 세균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손씻게 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 입히고, 목욕을 자주하고, 여아일 경우 화장실 다녀온뒤 또는 학교 갔다 오면 땀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일 씻기고 꼭 닭오라고 아동에게 교육을 한다.

양치질 습관으로 어릴때는 가제수건 삶아서 닦아주고, 양치질을 할 때 가래를 뱉어내도록 습관을 들이고, 혀바닥을 닦는 것도 가르쳐 준다.

아동이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들

이기 나뉘어라고 여긴다. 어릴 때부터 육류를 섭취할 때 야채와 곁들이는 습관을 들인 경우 이제는 아동이 어느 정도 스스로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챙겨서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며 아동의 습관형성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견스러워 한다.

배변 및 배설습관 들이기로 아동이 배변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가 계속 지켜보며 도우며, 아동이 대소변 시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엎어서 키웠다는 어머니는 아동을 갓난아이 때부터 엎어서 키워서 그런지 지금도 엎어서 자는 거 좋아하고 이불을 안 덮고 자도 배를 침대바닥에 두고 자니까 체온이 유지되어 설사는 잘 안한다고 한다. 또는 바른 자세 형성을 위해 엎드려 누워서 책을 읽거나 놀지 못하도록 한다.

② 도덕관념을 갖기

도덕관념으로 약속시간 지키기와 도덕심 길들이기가 있다. 아동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 아동이 어머니와 약속한 시간을 꼭 지키도록 습관을 들인다. 그래서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나갈 때 매사에 빈틈이 없이 정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이러한 시간관념을 통하여 규칙성과 정확성이 생기며 나아가 정직성이 생긴다고 여긴다. 등교시간, 학원 시간, 놀이시간 등도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알고 조절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한다.

또한 아동은 내 것, 남의 것 구별이 잘 안되므로 도덕심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즉 남의 것은 함부로 만지거나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족구성간에도 서로의 영역이 있음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면서 생활을 한다. 간혹 아동이 나와 너의 것의 구별이 잘 안되는 경우는 특히 아동이 나이가 든 아동의 경우에는 습관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 생활 습관이 길들지 않은 경우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어머니가 이러한 습관을 길러 주는 방법으로는 자율적, 회유나 설득, 강제로 행하게 하며 이것은 습관의 유형이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아동이 어릴때는 어머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나 성장해감에 따라 아동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5) 기원하기

앞서 아동의 체질이나 성격은 타고나는 것으로 즉 운명이라 여기지만 어머니는 운명에 복종하기보다는 아동

이 더 나은 상태, 더 건강하게 바뀌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기원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한다.

① 시기를 기다리기

어머니는 아동이 아이다운 외모를 갖추고 비만하지 않고, 식사를 잘하고, 아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나 성격 등이 빨리 고쳐지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아동과 관련된 것들은 성장발달의 특정한 시기에 따라 주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아동이 편식을 할 경우 습관을 고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잘되지 않다가 아동이 성장하여 유치원을 다니면서 단체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습관이 서서히 고쳐져서 요즘은 음식을 골고루 잘먹는다.

치아가 원래 약하여 충치가 많은 아동이 친구 집에서 침대를 막 굴리고 놀다가 침대 머리 장에 치아를 부딪혀서 앞의 치아가 하나 파래졌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네살될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동에게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동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조심한다. 동의보감 내경편(허, 1994, 홍, 1995)에 말을 하게 하는 방법(語法)에 말을 적게 하면 속에 있는 기를 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언어와 행동이 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는 것은 군자의 도리로 삼았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말 때문에 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애들 키우면서 막 말을 못하니깐 모든 아주 좋은 것에서부터 아주 나쁜 것까지 현대는 모든 가능성을 다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서"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를 '입보살'이라 하여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되면 특히 건강을 자랑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주술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면담도중에도 "이런 애기해 가[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아이 아플라. 거외 아픈 적이 없거든. ○○이는 거의 병원을 안가니까"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동이 어머니의 지갑에서 전화카드를 꺼내서 가위로 자르는 것을 보고 "화낼 일이 아니고 아들이 어느새 커 가지고 가위질을 그렇게 잘하게 됐는데 기분 좋게 생각해 줄 일이라고..." 하며 화를 억제하고 어머니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아동을 지켜보게 된다. 또한 아동의 특성이

항상 사고를 내거나 다칠 것 같아서 걱정은 하지만 “큰 사고 낼 거라고 그런 생각은 없고 신경질적으로 대처한 적도 없고…” 하면서 느긋하게 대처하며 아동의 성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항상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동이 성장발달하면서 각 시기에 따라 서서히 바람직하게 변화되기를 기원하며 그러므로 어머니 또한 언어나 행동에 신중을 기하며 생활을 한다.

②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아동을 기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타고난 아동의 인성도 어머니가 노력해서 발달시켜야 하며 아동의 건강도 적극적 개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은 나름대로 아동의 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잘 되기를 기원한다. 어머니는 아이다운 성격을 갖도록 돕거나 아동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올바른 인성개발의 방법으로 태권도를 시키거나, 아동을 밝게 키우기 위하여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밝은 색상의 옷을 입히며, 아동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영역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직접 중점적으로 신경 쓰게 되어, 아동이 산수는 잘하는데 국어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글짓기 공부를 시키면서 각별하게 신경 쓰게 되며, 운동에 대한 감각이 느린 것 같으면 방학을 이용하여 농구를 가르쳐 보기도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아동이 건강하기를 기원하거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아동이 개발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원이나 노력에 반드시 부응하지 않는 힘든 과정이며 행위로 어머니는 “마음대로 또 안되고 어떡해야 될지 모르지”라며 항상 자식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어머니로서 자신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반면에 아동이 어머니의 노력보다 훨씬 건강하게 커 가는 것을 보고 몹시 감사하고 대견스럽게 여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신장증진행위는 자연에 순응하기, 보하기, 공유하기, 길들이기, 기원하기로 나타났다. 자연에 순응하기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아동의 타고난 천성을 인정하고,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으며 여유를 갖고 아동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스리기, 아동이 스스로 병을 이겨내도록 하는 병을 다스리기, 음식의 섭취나 양의 조절시

과하지 않게 하며, 자연있는 그대로 아동에게 영양과 위생을 중시하여 음식을 섭취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하기에서는 아동의 몸과 마음을 보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먼저 어머니는 아동이 어른과 다르며, 각 아동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아동은 몸과 마음이 통합성이 완전하지 못한 개체임을 인식한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스스로 몸의 건강관리를 하며 아동에게 음식이나 한약 보충식을 통해 보충시켜주고, 병이 났을 때는 전문인의 도움을 구한다. 또한 아동의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험이 따르는 행위이나 장소를 제한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하기에서는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가족과 이웃간의 교류를 통해 원만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으로 가족 내의 구성원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웃과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비교함으로써 외부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길들이기에서는 아동이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도덕관념을 길러야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고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발달하므로 신체를 청결하게 하기, 양치질하기, 배뇨 배변습관들이기, 자세유지하기 등의 기본생활습관 기르기와 약속시간 지키기, 도덕심기르기 등의 도덕관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원하기에서는 아동의 모든 특성을 인정하지만 보다는 상태로 진보하거나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아동을 가꾸고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초기 아동기는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시기로, 가족은 아동의 잠재력을 조직하고 뻗어 나가게 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통합된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다. 그러므로 아동은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성장발달하게 되며, 어머니는 이러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충고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인간의 행위 패턴과 규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 행위류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P시에서 약 18개월에 걸쳐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의 참여자는 4세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어머니로 32세에서 37세까지 7명이었으며 자녀의 수는 1명에서 2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radley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으로 외모가 통통하면서 키와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성장함을 나타내는 “아이다운 외모”, 원만하고 밝은 “아이다운 성격”, 질병과 관련하여 “병치레 안함”, “잘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건강 증진 행위는 “자연에 순응하기”, “보호하기”, “공유하기”, “길들이기”, “기원하기”로 나타났다.

“자연에 순응하기”에는 천성을 인정하기, 다스리기, 자연있는 그대로 먹기가 포함된다. 어머니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타고난 아동의 체격, 건강상태 등의 본질적 특성 즉 천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안다. 그래서 어머니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아동에 대하여 과한 욕심을 갖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동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또한 아동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병을 다스려야 하며, 음식의 양이나 약물의 복용 등 과하게 행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음식은 인공조미료나 인공수유보다 어머니가 가능한 깨끗하게 직접 조리하며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자연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다.

“보호하기”에는 아이다움을 인식하기, 힘을 돋우기, 제한하기가 포함된다.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보호기 위하여 아동은 어른과 다른 개체이며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몸과 마음의 신체적 통합성이 부족한 특성 즉 아이다움을 인식한다. 아동의 힘을 돋우기 위해 먼저 어머니가 건강하여야 가능하므로 어머니의 건강관리하기, 음식 및 그 외 보충물, 보약 등으로 보충하기,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 구하기를 한다. 또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구를 사용 못하게 하거나 특정장소를 이용 못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방어하게 한다.

“공유하기”에서는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환경에 적응하기가 포함된다.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가정생활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고, 부모와 조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형제간에는 경쟁을 통하여, 친지간에는 자극을 통하여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한다. 또한 가족 이외에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울리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성을 가짐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써 조화로우름을 이루게 된다.

“길들이기”에는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기, 도덕관념을 갖기가 포함된다. 습관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신체 청결, 양치질, 식습관, 배변 및 배설 습관, 올바른 자세 유지 등의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약속시간을 지키며 도덕심 길들이는 도덕관을 갖게 한다.

“기원하기”에는 시기를 기다리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가 포함된다. 아동의 체질은 타고나지만 더 나은 상태, 더 건강하게 바뀌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아동의 좋지 못한 식습관, 성격이나 충치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 등이 빨리 고쳐지기를 바라고 아이다운 외모를 갖추기를 기원하지만 아동은 성장발달의 시기에 따라 저절로 고쳐지거나 낫는다. 그러므로 시기가 되기까지 기다리며 어머니의 말과 행위를 긍정적이며 신중하게 한다. 또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나름대로 아동의 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운동을 시키는 등의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을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의 지식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아동에 대한 간호를 행할때 우리 문화에 맞게 아동의 건강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언으로 본 연구는 도시 중류층 가정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관, 건강증진 행위를 파악하고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나 질병이 있는 아동,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귀애(1992). 국민학교 육학년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에 관련된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복(1993). 한국 사회의 구조와 인식, 사회문화연구소.
- 김기분(1990).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이(1988). 현대 건강개념에 관한 고찰, 중앙의학, 53(6), 379-391.
- 김원희(1994). 한의학적 건강관, 경희대학교 한방간호학연구회, 간호학술대회.
- 김태연, 전연강(1994). 만성재가 기동성장애자의 가정병실 모델 개발을 위한 현상연구, 간호학회지, 24(4), 597-615.
- 문경래, 박영봉(1993). 광주시내 국민학교 아동의 비만도 조사, 소아과, 36(1)
- 밀러 B.J., 윌헤미 공저(1995). 사회적 행동과 인간환경, 한올아카데미.
- 변영순, 장희정(1992). 건강증진 개념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3), 362-372.
- 스튜어트 E 저, 김성경 역(1989). 문화 차이와 인간관계, 보성사.
- 심우섭(1990). 한국전통사상의 이해, 형설출판사.
- 양순옥(1989).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신체 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1994). 한국적 전통육아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은광(1993). 질적연구방법론과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 대한간호학회지, 23(4), 713-725.
- 유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
- 이가영 외(1991). 소아 신체지수의 5년간 추이, 가정의학, 12(12).
- 이광규(1994). 문화인류학 개론, 일조각
- 이광옥, 양순옥(1990). 한국인의 건강생활 양상에 대한 신체 이론 연구, 간호과학, 2, 65-86.
- 이규태(1994).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
- 이은주(1995).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담론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일, 현중순(1996). 유아를 위한 건강지도, 증보판, 창지사, 15.
- 이화자 외(1994). 아동간호학, 정담사.
-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정우식(1988). 인간-생의 주기를 통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집문당.
- 조원정(1983). 건강행위에 대한 성인지각의 실증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존스톤 F.E., 셀비, H. 저, 권이구 역(1980). 현대 문화인류학, 서울, 탐구당.
- 최영희외(1992). 간호와 문화간호, 서울:수문사.
- 최영희, 고성희, 강신표(1992).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돌봄에 대한 연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in 최영희 외(1992). 간호와 문화간호, 서울:수문사.
- 최영희 외(1993). 질적간호연구, 수문사.
- 최재석(1994).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한글학회(1995).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한상복외(1991).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출판부.
- 홍만중 저, 천경태 역(1979). 순오지<홍만중의 수필모음집>, 을유문화사.
- 홍문화(1995). 허준의 동의보감, 등지.
- 허준 저, 동의학연구소역(1994). 동의보감, 여강출판사.
- Aamodt, A.M.(1991). Ethnography and epistemology: generating nursing knowledge, J.C. Morse(E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Newburg Park: SAGE Pub.
- Beck, C.T.(1990).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and use in Pediatric nursing,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3, 193-310.
- Campbell.J.D.(1975). Illness is point of view: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ncepts of illness, child development, 46, 92-100.
- Capra F. 이성범, 김용정 역(1987). 현대문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 Christiansen, K., E.(1981). The determinent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Rush University.
- Farrand L. L. & Cox, C. L.(1993). Determinants of positive health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Nursing Research, 42(4), 208-213.
- Fray, S.(1988). The ethics of caring: can it Survive in Nursing?, Nursing Outlook, 36(1), 48.
- Gotner, S.R.(1983).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and research, ANS, 5(2), 1-8.
- Goodenough, W.H.(1961). Comment on cultural

- evolution, *Daedalus*, 90, 521-528, cited in 유은광 (1993). 질적연구방법론과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방법. 대한간호학회지, 23(4), 713-725.
- Harris, D.M.(1979). Health protective behavior : A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17-29.
- John-Saylor, M.(1980). Seiz the moment health promotion for the young adult, Holistic in clinical Nursing, 29(2), 9-19.
- Lalonde, M.(1974).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 A woring document. Ottawa : Information Canada.
- Laffrey, S.C.(1990). An exploration of Adult health behavior,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2(4), 434-447.
- Leininger, M.M.(1978).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 Wiley.
- Leininger, M.M.(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Grune & Stratton, Inc.
- Leininger, M. M.(1988).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 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Nursing Science Qurterly, 101(4), 152-160.
- Linton R. 전경수 역(1992). 문화와 인성. 3판, 현음사. 32-33, 49.
- Mechanic, D.(1964). The influences of mothers on their children's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 Pediatrics, 39, 444-453.
- Morse, J. M.(1989).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 A contemporary dialogue. An Aspen Publication.
- Munhall, P.(1982). Nursing philosophy and nursing research : In apposition or Opposition?, Nursing Research, 31, 176-181.
- Munhall, P. & Oiler, C. J.(1986).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Appleton-Century-Crofts.
- Murray, R. & Zentner, J.(1989). Nursing concepts for health promotion. Nursing Research, 35(1), 19-23.
- O'Donnell, M.(1986). Definition of health promo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 4-5.
- Omery, A.(1988). Ethnography. B. Sarter(Ed). Path to knowledge : Innovative Research Method for Nursing, New York : NLN.
- Papilia, D. E. 외 2인, 박성연 역(1994). 인간발달 I, 교육과학사
- Parse, R. R., Coyne, A. B. & Smith, M. J.(1985). Nursing Research : Qualitative Methods Engewood Cliff : Prentice-Hall Co.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Sage Publication, Inc.
- Pender, N.J.(1982).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 Pender, N.J.(1987).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2nd ed., Norwalk, Conn, Appleton & Lange.
- Sahlins, M.D.(1968). "Culture and Environment : The study of cultural Ecology" Theory in Anthropology, eds, by Robert M 7 David K. Chicago : Aldine, cited in 전경수(1992). 문화와 인성, 3판, 현음사
- Schultz H.G. & Biard, P.C.(1979). Life style and consumer behavior of older Americans, New York, Praeger Pub.
- Smith, M.J.(1988). Perspectives of wholeness : The lens makes a difference, Nursing Science Quterly, 1(3), 94-95.
- Spradly J.P.(1989). 이회봉(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Abstract –

A Stud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children

Lee, Hua Za · Jung, Hyang Mi** · An, Hye Gyung**

Young children need continuous care and fostering by their family. They help children organize and develop their potential and grow to be and integrated individuals. Children are influenced by then family at first and continuously when they grow up and develop their capability. Especially, mothers spend a lot of time with time to their children, encourage children's growth, give advice, and do their best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 ethnographic study is to understand the patterns and rules of human behaviors.

This study utilized this method in order to interpret the maternal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their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irect interview for about 18 months in P city. The participants were 7 mothers, from 32 to 37 years old. They have children of ages 3 to 10 and 1 or 2 children in total.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radley's Ethnographic method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viewpoints which influence maternal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clude "having childlike appearance", "having childlike character", "living without illness", and "eating well".

The maternal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children are classified as "adapting to nature", "supporting of ability", "sharing with the family", "training", and "praying".

The adapting behaviors include "recognizing child's innate character", "controlling maternal desires", "preparing natural food", which includes breast feeding.

The supporting behaviors include "recognizing childlikeness", "empowering", and "restricting certain actions to preventing accidents". In order to promote child's health, it is essential to promote mother's health first of all.

The sharing with the family includes "promoting family concord or acquaintanceships concord" and "adapting to circumstances beyond family".

The training behaviors include "forming good habits" and "having good moral value".

It is very important to form good habits in childhood.

The praying behavior include "waiting for opportunities" and "endeavoring activity to promote child's health".

The above 5 behaviors by mothers appeared to be able to promote children's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the patterns of maternal health promoting behaviors consistent with our culture and can contribute us develop the body of knowledge about the maternal health promotion for children in nursing.

*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Dong Eui University